

김억수 본부장에게 듣는
울산지역본부의 오늘 그리고 내일

친환경 제조혁신을 선도하는 실용화 연구기관으로 도약



울산지역본부는 지난 7월 7일, 본부승격 현판식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올해 초 대대적으로 단행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조직개편을 통해 울산친환경청정기술센터가 울산지역본부로 승격된 것. 특히 울산지역본부는 울산시가 유치한 첫 출연(연)으로서 울산지역의 중소·중견기업 제조혁신을 선도하며 다양한 성과를 내 더욱 주목받고 있다. 국내 최대 산업수도인 울산, 그리고 그 중심에서 지역과 중소·중견기업의 동반성장을 꿈꾸는 울산지역본부 김억수 본부장을 찾았다.

Q. 지난 3월 단행된 조직개편에서 울산친환경청정기술센터가 울산지역본부로 승격되었습니다. 소감이 어떠신지요.

울산지역본부는 2008년 친환경청정기술센터로 출발해 2012년 사옥 준공, 그리고 오늘날 본부승격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현재 사옥은 우리 연구원들이 직접 설계와 건축에 참여하여 완공하였기에 그 기쁨이 더 큼니다. 또한 준공 개소 후 3년째에 접어든 올해 울산지역본부로 승격되면서 그 책임과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음을 느낍니다. 울산시가 유치한 첫 정부출연연구소인 울산지역본부는 산업수도라는 명성에 걸맞는 우리나라 주력산업 기반인 지역 제조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제조혁신 기술선도형 중

소·중견기업이 많이 육성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생기원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한편, IT, ET 기술 등의 친환경 융복합 생산기술을 접목한 '중소·중견기업의 실용화 기술 개발과 기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울산지역본부 2020년 발전 전략 비전인 '친환경 제조혁신을 선도하는 실용화 중심 연구기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울산은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비철금속 등의 주력산업으로 국내 최대의 생산(지역 내 총생산 230조 3천억 원)과 수출(1,015억 불)을 자랑하는 산업수도입니다. 하지만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전국 평균의 5배 수준이고, 그로 인한 온실가스(CO₂) 발생량이 전국의 10%에 가까워, 향후 주력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업환경 문제입니다. 따라서 울산지역본부는 2020 발전 전략 비전을 '친환경 제조혁신을 선도하는 실용화 중심 연구기관'으로 설정, 울산지역의 중소·중견 제조기업에 친환경 융복합 생산기술의 접목을 통한